

## SAMC | LAW REVISION

## 1. '수출용 원재료 소요량 사전심사제도' 도입

내년 7월 1일부터 관세환급 대상 '수출용 원재료 소요량 사전심사 제도'가 도입된다. 수출용 원재료 관세 환급이란 수출물품 생산에 들어간 원재료를 수입할 때 낸 관세를 수출 시 다시 환급 받는 제도를 말한다. 관세 환급 시 수출물품 생산에 들어간 원재료 양이 환급액의 산정기준이 되는데, 기업이 자율적으로 계산한 소요량은 정확성이 담보되지 않아 늘 관세추징의 위험을 안고 있었다. 이에 관할세관에 심사를 신청하면 심사 결과를 확정해 통지하기로 했다.

[Read More](#)

## 2. '보세운송 배차 예정내역 신고' 전산화

관세청은 「보세운송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8월 1일 입안예고했다. 먼저 보세운송 신고자가 보세운송 시 사용할 운송수단에 대해 물품의 반출 전까지 발송지 세관장 또는 도착지 세관장에게 '운송수단 배차 예정내역 신고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이에 현행 보세운송 신고필증상 수기로 기록·보관, 변경 시 별도 승인을 받도록 돼있는 운송수단정보를 화물 반출 전까지 화물관리시스템에 전송할 수 있도록 절차 및 서식을 신설했다.

[Read More](#)

## 3. 수입식품 안전관리 강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대상범위 확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수입식품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수입신고 등 절차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식약처는 그동안 유독·유해물질이 들어있는 제품을 수입하는 경우 등 1차 위반 시 바로 영업등록을 취소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운영해왔다. 그러나 앞으로 수입식품 제품에 표시된 유통기한을 위·변조하거나 식품의 중량을 변조할 목적으로 납, 얼음, 한천 등의 이물을 혼입한 경우에도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한다는 입장이다.

[Read More](#)

관세법인에스에이엠씨(SAMC)는  
정직한 관세행정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SAMC | CUSTOMS &amp; TRADE TREND

## 1. 중국을 향한 미국 수입규제, 피해는 한국이 더 커

한국무역협회는 미국이 중국을 주요 타겟으로 통상 압력을 가하고 있으나 오히려 한국이 상대적으로 수입규제 리스크가 크다고 밝혔다. 실제로 현재 미국의 對중국 수입이 對한국 수입의 6배 이상임에도 불구하고 최근 개시된 미국의 반덤핑 조사 건수는 중국이 16건이며 한국은 12건에 달한다. 무역협회는 한국이 주요 타겟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수입규제 리스크가 확대되는 주요 원인 중 하나로 미국 시장에서 중국과 수출경합 관계가 지속되고 있는 것을 꼽았다.

[Read More](#)

## 2. 기재부, 내부조직 개편으로 경제구조 개혁 앞장선다

기획재정부가 분배와 성장이 선순환을 이루는 사람 중심의 지속성장 경제로 패러다임 전환을 뒷받침하고, 강력한 지출 구조조정 등 재정 혁신을 추진하기 위해 1차관 산하에 '경제구조개혁국'을 신설하고, 2차관 산하에 '재정혁신국'을 확대 개편한다는 밑그림을 내놨다. 기재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개정안을 8월 17일 입법예고했다. 우리 경제의 구조적 문제인 일자리, 양극화, 저출산 등을 해결하고 고강도 재정 개혁을 추진 할 예정이다.

[Read More](#)

## 3. 대만-태국-UAE산 PET 필름에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 건의

무역위원회는 '17.8.25.(금) 제368차 회의를 개최하여, 에스케이씨(주) 등 5개 업체가 신청한 대만-태국-UAE산 PET(Polyethylene Terephthalate) 필름에 대한 반덤핑조사 건에 대하여 기획재정부에 3.92~51.86%의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를 건의하기로 결정하였다. PET 필름은 포장용(스낵포장용 등), 산업용(태양광 백시트, 접착테이프 등), 광학용(LCD, PDP 소재 등), 그래픽용 등 우리 실생활의 많은 부분에 사용되고 있으며 대만-태국-UAE산 PET 시장점유율은 약 10%이다.

[Read More](#)

관세법인에스에이엠씨(SAMC)는  
정직한 관세행정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SAMC | FTA TREND

## 1. '창과 방패의 대결' 한·미 FTA 개정 협상, 입장 차만 확인

산업통상자원부와 미국 무역대표부는 8월 22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한·미 FTA 공동 위원회 특별회기를 개최했다. 무려 8시간 동안 이어진 마라톤협상이었지만 어떠한 합의도 없이 서로 입장 차만 확인한 채 마무리됐다. 예상대로 미국측은 자동차와 철강·IT 업종에서 무역 불균형이 심해졌다고 당장 FTA 개정 협상을 시작하자고 주장했지만, 우리 정부는 이에 동의할 수 없다며 한·미 FTA 효과부터 공동으로 조사·분석해보자는 제안으로 응수했다.

[Read More](#)

## 2. FTA 교역이 지속적인 수출 증가에 기여

관세청은 FTA 발효국(52개국)과의 상반기 FTA 활용률 및 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FTA활용지도를 공개했다. 상반기 FTA 교역은 수출 2,025억 달러(17.9% ↑), 수입 1,479억 달러(17.1% ↑)로 전년 동기대비 17.6% 증가되면서 546억 달러 흑자를 달성했다. 비발효국 교역에 비해 증감률이 수출은 7.4%p 높고, 수입은 12.0%p 낮게 나타나 FTA 교역이 수출을 이끈 것으로 보이며, 특히 호주(222.0%), 베트남(53.5%), 인도(22.7%), EU(22.1%),의 수출 증가폭이 컸다.

[Read More](#)

## 3. 그리스 인증수출자 번호체계 '예시부분' 변경

EU 회원국 인증수출자 번호체계 중 그리스의 번호체계가 일부 변경됐다. 해당 번호 체계는 8월 2일부터 적용된다. 관세청 자유무역협정집행기획담당관실은 8월 11일 유럽 연합 측 인증수출자 번호체계가 변경됐다고, 이에 대한 변경사항을 숙지하라고 당부했다. 관세청은 8월 2일부터 기존 그리스 인증수출자 번호체계 중 예시 부분이 'GR/01/1234/2004'에서 'GR 01/1234/2004'로 일부 변경됐다고 설명했다. 국가코드와 세관코드 사이 슬래시를 없애고 한 칸을 띄운 것이다.

[Read More](#)

관세법인에스에이엠씨(SAMC)는  
정직한 관세행정서비스를 제공합니다.